

^_^ 햇살 좋은 집 하은·신우네 (2020년 7월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 이곳 모습



마스크를 쓰고 사진만 찍은
신우의 초등학교 졸업식(2020.6.28)

♣ 감사

1. C국 모임이 비즈니스를 통한 장족사역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심
2. 김선생이 오랄디펜스(Oral Defence for Ph.D.)를 통과함에 감사. 지역모임의 타문화 사역자 훈련에 참여함에 감사
3. 이선생이 미얀마 난민학교에서의 섬김과 동역 그룹이 생김에 감사

♣ 함께

4. C국의 NGO, BAM, 가정 모임 담당자들의 안전과 새로운 비즈니스 사역의 순직한 정착을 위해. BAM 책임자 Z형제가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도전을 극복하도록
5. 김선생이 9월 WCIU 졸업예정이다. 예비해 놓으신 좋은 만남과 협력을 위해. 필드를 디아스포라에서 말레이시아필드로 전환하여 현지 사역에도 순조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6. 이선생이 이곳 대학(UKL)에서 한국 어교사로 섬길 기회가 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사역의 문이 열리고 한국 어 교사자격증도 획득하도록
7.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들을 만나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울 수 있도록

♣ 하은(22세) & 신우(13세)

8. 하은, 장염과 열병(코로나 아님)을 잘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함에 감사. 진로, 진학, 장학금 등이 순전히 진행되도록
9. 신우, 이동통제 이후 주일모임에 참석하고, 좋은 시간을 보냄에 감사. 초등학교 졸업 감사. 중학교에서도 건강하고, 학업에 집중하도록

♣ 코비드(Covid 19)와 기독교문명운동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를 예측한 랄프 윈터(Ralph D. Winter)의 지혜와 선지자적 시각을 복기해본다.¹⁾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질병, 세균, 바이러스 등은 끊임없이 인간집단을 공격한다.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그토록 악한 존재가 되었고, 질병은 잔인하게 인간을 공격하였다. 전쟁과 역병은 사탄의 전략이다(일부 신학자들이 전쟁과 질병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주권과 혼동하면 위험하다). 사탄이 죽음을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다른 인간집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른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통치, 그분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게 된다.

‘복’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에게 직접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복은 책임이 수반된다.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인간집단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열방의 복이 되어야 한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열방이 복을 받는 그분의 선교 목적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그분의 백성을 사용하신다. 세계는 현재 기독교의 낮은 도덕성을 이전의 어느 때보다 조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기독교 국가들(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서구 문명을 분리하여 인식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고난을 통해 이뤄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초대교회의 고난으로 로마 기독교문명이 잉태되었다. 로마가 고통받음으로 야만인(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후, 기독교 문명운동을 일으킨 야만인들이 고난당한 후에는 바이킹(스칸디나비아 종족, 북유럽)이 회심했다. 그리고 서구 기독교 문명세계가 고통을 당한 후 비서구와 수많은 종족들이 기독교 문명화되리라 희망한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종족을 불모로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패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모든 일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민족과 나누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지키려고 한다면 곧 재앙이 닥칠 것이다. 우리는 이전의 나라들처럼 자신의 복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 주기 원하신다. 우리는 기독교 문명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역사는 이미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346년 처음 나타난 페스트는 그 후 10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괴롭혔다. 페스트 이후 유럽은 인본주의, 인쇄술, 식민지 경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연구 운동과 기독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개신교 선교운동이 일어났다. 페스트 환자를 돌보았던 영적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섬김과 희생, 친밀한 교제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2020년 7월 16일

기독교 문명운동을 소망하는 김은유, 이보배 & 하은, 신우 올림

1) 임윤택, 랄프 윈터의 기독교문명운동사(예수전도단), 350-413 참고.

※ 연락처

- 주소: OMF Malaysia Office(03-42574263). 3A, Jalan Nipah, Off Jalan Ampang, 55000, Kuala Lumpur, Malaysia
- 연락처: noah123@한메일 // 카톡: minamkks // (Kim) +60 16 9706 054, (Lee) +60 16 9706 144

※ 후원방법

- 동역: 사역에 함께하실 기도 동역자, 재정 후원자 & 단체, 장단기 사역자분들을 요청합니다.
- 개인 후원: 국민은행 049790-29-000045 (김은유),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02-455-6801)
- 단체 패밀리멤버: 매달 한 구좌 오천 원의 후원과 기도로 헌신하는 분에게 일 년에 5권 분량의 서적 등을 보내드립니다.